



## 고려해운

5개 부서 12개팀으로 통합

고려해운(대표 박정석)은 12월5일부로 서울 본사의 조직을 대팀제로 개편하고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팀과 총무팀이 통합되어 인사팀으로 변경됐으며, 자금팀과 회계팀이 통합돼 재정팀으로 다시 태어났다. 수입관리팀, 비용관리팀, 업무팀은 업무심사팀으로, 해사팀과 기기관리팀은 해사기기팀으로 변경됐다. 또한 영업 전략부 소속의 해외 영업팀이 신설됐다.

서동우 전고려해운항공 전무가 고려해운으로 인사발령되었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임원들의 보직도 변경됐다.

고려해운 관계자는 “기존의 6개 부서 20개 팀을 5개 부서 12개 팀으로 축소하여 조직을 슬림화하고 이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극대화함으로써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직개편] △인사팀과 총무팀 : 인사팀 △자금팀과 회계팀 : 재정팀 △수입관리팀, 비용관리팀, 업무팀 : 업무심사팀 △해사팀과 기기관리팀 : 해사기기팀 △영업 전략부 소속의 해외 영업팀 신설

[임원 인사] △선임 : 서동우 전무(해사, 운항, 선원, 선박관리부 담당) △보직 변경 : 안익현 상무(컨테이너 영업부 담당), 이정경 상무(부산사무소장) △정구석 상무(중국 담당, 상해 주재)

## 대한해운

창립39주년 기념식 거행

대한해운(대표 이진방)이 12월12일 오전 11시 본사 6층 강당에서 해·육상 및 관계사 임직원 그리



고 임우회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9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진방 회장은 기념사에서 “2007년에는 약 15억 불을 투입하여 총 21척의 선박을 확보함으로써 창사이래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는 한편, 전용선대의 안정적인 영업활동과 적극적인 부정기선의 영업전략으로 사상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여 국내외 당사의 위상을 유감없이 드러냈다”며 “또한 가스선 및 탱커선 사업의 다각화와 싱가포르 현지 법인의 성공적인 설립으로 글로벌 선사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는 한 해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회장은 이어 “우리에게는 40년 가까이 쌓아 온 노하우와 열정이 있고, 도전정신과 강한 정신력으로 임직원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정진한다면 비전 2010을 넘어 세계 일류의 에너지·자원 전문 수송선사로 성장할 것”을 확신한다며 힘찬 도약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진방 회장의 유공직원과 장기간 속자 표창수여가 있었다.

한편, 1968년에 설립된 대한해운은 국가기관사업에 필수적인 원자재를 수송하는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왔으며, 부정기선 부문의 영업경쟁력 강화로 세계적인 에너지·자원 전문 수송선사로 성장했다.

[수상자 명단] △해상직원 : 유공사원(3명)=텔타



프라이드호 선장 정재영, 아네모네호 기관장 김웅찬, 군자란호 갑판장 최봉준, 20년 장기근속자(7명)=델타프라이드호 일등항해사 이대희, 아도니스호 기관장 김도현, 아카시아호 통신장 정선옥, 마리골드호 갑판장 남구진, 군자란호 갑판장 최봉준, 델타프라이드호 조기장 박근철, 군자란호 조기장 박종상

△육상직원 : 유공사원(4명)=부정기선1팀 차장 이동정, 보험법무팀 과장 이상욱, 부정기선2팀 대리 조태원, 공무팀 대리 강문장, 20년 장기근속자(2명)=총무팀 차장 이훈용, 총무팀 사원 유기택

## 선우그룹

내년 해운매출액 10억\$ 목표

선우상선과 선우S&T(옛 봉신), 선우중공업 등으로 이루어진 선우그룹은 2008년도 해운부문 매출 10억달러(1조원)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 그룹은 올해 매출이 2006년대비 168% 증가한 5억 5,000만달러(잠정)를 기록할 전망이며, 내년에는 올해대비 88% 정도 늘어난 10억 4,000만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해운부문 이익의 경우도 올해 4,400만달러로 전년대비 22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내년에는 82% 가량 증가한

8,000만달러를 목표로 설정했다.

해운부문 영업이익은 올해 3,279만달러(추정)에서 내년에는 107% 증가한 6,783만달러를 목표로, 영업이익율을 올해 6%대에서 내년에는 6.5%대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은 지난 12월21일 오후에 열린 선우상선 송년행사에서 참석임직원들에게 발표했다.

이날 정인현 사장은 이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강조하는 한편 해운부문의 확대이외에도 북한 진출계획, 에콰도르를 비롯한 리투아니아 등지에서의 에너지사업 부문 진출 계획 등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선우그룹은 올해 조선소 인수를 비롯해 에콰도르 유전개발사업 참여 등을 추진하는 등 착실하게 외형확대에 나서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벌커부문과 케미칼탱커와 원유수송 등 탱커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SK해운

임원 승진인사 단행

SK해운(대표 이정화)은 박건용씨를 상무로 승진 선임하는 등 임원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승진]△상무 :박건용, 김영진, 황신, 김원환, 박광배

## STX팬오션

이종철 사장 부회장으로 승진

STX팬오션 이종철 사장이 STX그룹 해운·지주(무역)부문 총괄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STX그룹은 '2008년 매출 25조원, 해외매출 260억불' 달성을





▲ 이종철 부회장

위한 글로벌 경영 가속화를 위해 해운·무역 / 조선·기계 / 플랜트·건설 / 에너지의 4대 사업부문을 축으로 부회장단을 중심으로 한 '사업부문별 책임경영체제' 구축에 따른 집행임

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12월26일 밝혔다.

STX그룹은 이종철 부회장, 이상욱 부회장 승진을 포함해 사장 승진 3명, 부사장 승진 5명, 전무 승진 11명, 상무 승진 14명, 부상무 승진 25명 등 총 60명에 대해 승진인사를 실시하고 부회장 1명, 전무 1명, 상무 1명, 부상무 1명 총 4명을 신규 선임하는 창사이래 최대 규모의 임원인사를 실시했다. 이와 아울러 실장 승진 및 신규 선임 27명에 대한 인사도 함께 실시했다.

올해 최대 호황기를 맞고 있는 벌크선 사업의 성공적인 전개로 역대 최대 규모의 매출과 경상이익을 달성한 이종철 STX 팬오션 사장을 해운·지주(무역)부문 총괄 부회장으로 승진선임했다.

[STX팬오션 임원승진] △사장 : 김대유 △부사장 : 추성엽 △전무 : 심재운, 이승원, 최임엽, 김태정 △상무 : 김혁중, 인현진 △부상무 : 손점열, 유연직, 박동일, 권오인, 김성일, 김영철 △실장 : 양경호, 김원규, 박일현, 김혁기, 권오성

[전보] △(주)STX 전무 서충일(STX 팬오션 전무)

## 파크로드 벌크선 2척 신조발주

파크로드(대표이사 염은선)가 3만2500DWT급 벌크선 2척을 신조발주했다.

3만2,500DWT급 벌크선 2척에 대한 R/G가 발급됨에 따라 신조작업이 지난 10월에 착수됐으며, 이 선박들은 오는 2009년 하반기와 2010년 상반기에 인도된다.

파크로드는 이번 벌크선 신조로 선대 및 영업력 강화는 물론 전체적인 선령이 하향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9일자로 이기웅 상무이사를 영업본부장 겸임 파크로드 싱가포르 지사 법인장(사장)으로 인명했으며, 김원장 상무이사를 경영기획 본부장 겸임 파크로드 중국 지사장(사장)으로 선임했다.

이번 인사는 실적향상과 조직의 인화에 열정을 발산한 직원을 대상으로 승진위주로 단행했다고 파크로드측은 언급했다.

## 한진해운 해외지역그룹장 회의 개최

한진해운(대표 박정원)이 12월17~18일 양일간 여의도 본사에서 박정원 사장 주재로 '2008년 컨테이너부문 해외지역그룹장 회의'를 열고 2008년도 사업 계획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미주, 구주 및 아시아지역 3개 해외지역 그룹장(본부장)과 본사 관련 임원 및 팀장 등 약 60여명이 참석하여 내년도 해운환경 변화, 시장동향과 컨테이너 영업·물류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서 토의하고 대응전략을 점검했다.

아울러, 2008년 항로 및 선대 운영계획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효율적인 물류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한진해운은 금번 회의에서 당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해외지역 매출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미주/구주/아시아 3개 해외지역의 2008년도 컨테이너 사업 계획 및 세부 달성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최은영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다가오는 2008년에는 우리 모두 준비하는 자세로 위기와 기회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주위 환경변화에 상관 없이 목표 달성을 이루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하고, “또한 지난 5월 창립기념일에 발표한 ‘Vision 2017’을 통해 10년 후 한진해운이 세계 초일류 종합물류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열성을 다해주길” 당부하였다.

한편, 한진해운은 최근 언제 어디서나 원격으로 운항선박을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선박관리 Portal’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선박관리 포탈 시스템은 크게 ‘선박관리, 선원관리, 선원교육’의 세가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단위업무시스템을 선박관리 포탈 시스템으로 통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 기반으로 구축되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종합적인 원격 관리가 가능하며, 각 운항 선박별 운항 성과(Performance)와 안전수준(Safety Level) 진단을 통해 최적의 선박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선박 Monitoring’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

하였다.

한진해운은 이번 선박관리 포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선박과 육상간 상호 데이터 호환이 개선되고 선박관리 기능이 향상됨으로써 안전운항 및 정시운항 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진해운은 올 상반기에 전체 운항선박에 대상으로 ‘선박 안전문화혁신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우수한 해상인력 양성을 위해 모의 선박조정 시뮬레이션 장비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춘 운항훈련원을 개원하는 등 안전운항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오고 있다.

## 현대상선

### 2008년도 경영전략회의 개최

현대상선(hmm21.com, 대표 노정익)이 2008년도 경영전략회의를 금강산에서 개최해 화제를 모았다.

현대상선은 12월2일부터 5일까지 금강산에서 노정익 사장 및 미주, 구주, 아시아 등 해외조직의 주재원과 본사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경영전략회의를 갖고, 각 사업부문의 내년도 영업 전략과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정익 사장을 비롯한 회의 참석 임직원들은 회의에 앞서故정몽헌 회장 추모비를 참배하고, 회의 중간 중간 교예공연 관람, 삼일포 관광 등 다양한 일정 속에 2007년을 마무리 짓고 2008년도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대상선이 이 날 논의한 2008년도 영업계획에 따르면, 컨테이너선 부문과 비컨테이너선 부문(벌크선, LNG선, 유조선 등) 모두 신규선박 확충 및

영업망 확대 등을 통해 영업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 개척 틈새시장 진출로 특정 시황과 상관없는 안정적인 수익 기반 확충에 힘쓸 예정이다.

먼저 컨테이너선 부문에서는, 최근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아시아-구주」간 항로를 비롯해「아시아-미주」간, 아시아 역내 항로 등에서 잇달아 신규 항로를 개설하고 선복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아시아-구주」간 항로의 경우 국내 선사로서는 최대인 8,600TEU급 신규 컨테이너선 4척을 투입하고 북유럽 및 서지중해 등 신규 시장에 항로를 개설해 영업력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항로 개편과 더불어 성장이 기대되는 신흥 시장에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영업조직 확장을 통한 수익성 강화 노력도 이어갈 방침이다.

비컨테이너선 부문에서도 신규 선박을 확보하고 다각적인 영업라인 구축을 통해 영업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케미컬선, LPG선 등 특수선 사업 분야의 비중을 더욱 확대하고 전담 주재원 규모도 늘려 본격적인 시장 개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대상선 노정의 사장은 개회식에서 “2008년에는 물동량 증가와 해운시황의 회복이 예상되나, 비용 증가와 세계경기의 불확실성을 염두에 둔 영업 전략을 수립하여 불황기에도 수익성이 보전되는 강인한 기업 체질을 완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변동성이 심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양호한 실적을 보여준 올해의 성장 탄력을 계속 이어나가 벌크선 부문의 성장성과 컨테이너선 부문의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상선은 최근 임원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승진] △전무 : 김윤기(金允基), 권주석(權周錫)  
△상무 : 최경호(崔京鎬), 이택규(李宅圭), 최형규(崔衡奎), 김수호(金洙浩) △상무보 : 이용욱(李容

郁), 양승인(梁承仁)

[선임] △상무보 : 임영수(任英洙)

## 흥아해운

창립 46주년 기념식

흥아해운(대표 이윤재 회장)은 창립 46주년을 맞아 이윤재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2월7일 창립기념식을 가졌다.

이윤재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회사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온 육·해상 임직원 여러분과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내·외 협력회사와 화주 및 주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해운환경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계속 변하고 있으며,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임직원들이 끊임없이 변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회장은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도전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할 뿐 아니라, 자기 개발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다해주기를 당부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장기근속자를 비롯하여 모범사원 및 우수 해상직원, HR 아카데미 우수상, 어학 성적 우수자 등에 대한 시상도 있었고 부상으로 순금 메달과 금일봉이 전달되었다.

## 목포해양대학교

C&중공업과 산학협력 교류협정

목포해양대학교(총장 신철호)는 (주)C&중공업(대표이사 임갑표)과 12월20일 대학본부 2층 회의실에서 산학협력 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목포해양대학교와 C&중공업은 우수한 해양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신해양시대를 맞아 두 기관



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산학협력 교류협정을 체결한다. 목포해양대학교에서는 그 동안 쌓아 온 연구력을 바탕으로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C&중공업에 기술지원을 하게 되고, C&중공업은 목포해양대학교에 각종 교육시설을 제공하며, 학생실습 및 인턴사원 채용 등 취업을 지원하게 된다.

산학협력 교류협정 체결 내용으로는 학술정보의 상호교환, 학술적 자문, 연구지원의 외부수탁을 포함한 산학공동연구의 실행, 세미나, 교육시설 등을 통한 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공유, 현장실습, 견학, 연구지자체 및 시설물의 최대한 활용, 산업장학생 및 인턴제 운영으로 지역혁신인력 공동육성, 전문인력의 수급 및 졸업생의 취업에 관한 상호 협력, 상호 구성원 간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기타 양 기관간의 우호관계를 깊게 하고 조선, 해양, 해운산업발전에 서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기타 상호 관심 분야 등이 포함되어 있다.

C&중공업은 C&그룹이 새롭게 시작하는 신조선주력 회사로서 공장면적 26,714㎡에 PANAMAX급 10척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LR급 정유운반선과 MR급 정유운반선, PANAMAX급 살물선(83K DWT), HANDYMAX급 살물선 등이 주생산선종이다.

C&중공업은 사업초반 83K DWT급 PANAMAX BULKER의 건조를 시작으로 하여 2010년 이후 고부가가치 선박을 건조할 예정이며 2010년 이후 연간 매출액 5,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인천항만공사 공공혁신전국대회에서 대상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서정호)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성과를 평가하는 제8회 공공혁신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인천항만공사는 12월11일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한 공공혁신전국대회에서 인천항만공사가 출품한 혁신사례 ‘혼합폐기물에서 희망을 보다(수피 혼합폐기물 분리처리 재활용 방안)’가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통한 수익모델 개발을 평가하는 공공기관 사업역량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대상을 받은 ‘혼합폐기물에서 희망을 보다’는 2007년 건설팀이 추진했던 사업으로 아암물류단지 지표면에 혼재돼 있던 골재와 나무껍질을 분리처리함으로써 폐기물 감소와 재활용 등으로 약 5억8천만원의 비용 절감과 환경 보전 효과를 가져온 경영혁신 사례다.

인천항만공사는 이 혼합수피 분리처리 방안이 아암물류단지 전체로 확산 적용될 경우 최대 41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공혁신전국대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수 경영혁신 사례를 발굴해 벤치마킹함으로써 기관의 혁신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창설된 대회로 올해로 8년째를 맞고 있다.

이번 8회 대회에는 총 48개 기관이 총 50개 경영혁신 사례를 출품해 인재육성과 고객만족, 사업역

량, 업무성과, 책임경영 등 5개 부문에서 자웅을 겨뤘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7회 대회에 처음 참가해 2등상에 해당하는 최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두 번째 출품인 올해 최고 영예인 대상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둬 혁신선도 공기업임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이날일 시상식에 앞서 서울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공혁신전국대회 혁신컨퍼런스에 박용문 부사장과 혼합폐기물 분리 처리를 담당했던 윤성태 대리가 참석해 직접 혁신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 울산항만공사

액체화물업체 대표와 간담회

울산항만공사(UPA·사장 김종운)는 12월21일 액체화물업체 대표자와의 간담회와 울산항 이용업체 실무자와의 간담회를 잇따라 열어 울산항 현안 및 내년도 운영 방향 등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울산신항 개발을 포함한 액체화물 중심항 구축 방안 △울산항 포트세일즈 및 마케팅 강화 방안 △겨울철 해상교통 및 항만안전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양측은 울산항 활성화와 수익 증대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에 입각한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의 전개와 안전한 항만운영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초대형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양 측은 국내 최대의 액체화물 취급 항만인 울산항에서는 대형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상존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예방 노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업체 관계자들은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가능

하도록 주기적인 수심 측량과 유지 준설의 적기 시행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UPA는 “준설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가능한 한 이른 시일내에 우선순위를 정해 준설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UPA는 온산항 입주 물류업체에 대한 수도공급 요청에 대해서는 “울산시 업무인 만큼 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업체의 요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장생포 고래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울산항 이용 선사 및 대리점, 하역업체, 화주 등 실무자와의 간담회에서는 울산항 이용을 둘러싼 애로사항 해소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업체 관계자들은 △가스 선박의 야간작업 허가 △부두 내 휴게소 신설 △제5부두 분진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설치 △항로 등부표의 등질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UPA는 담당부서별 검토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즉각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UPA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울산항 유지 보수 계획을 설명했다. 또 이달 초 구축한 고객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한 시연회도 가졌다.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항만협회와 상호협력 협약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우리공단(이사장 정이기)은 12월18일 한국항만협회(이사장 이용기)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외 항만개발 수요 파악을 위한 정보의 상호교류 및 공동연구 △

항만건설 CALS 및 지하 시설물 GIS DB에 관한 기술 지원 및 교류 △항만건설 신기술 개발 및 적용과 확산을 위한 공동협력 △항만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공유, 교육훈련 지원 △항만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재해·재난 방제를 위한 정보기술 공유 △국내외 항만건설 정보화를 위한 정보 교류 및 공동 시장 개척 △남북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항만개발사업 지원의 공동협력 △유비쿼터스 구현을 위한 첨단 지능형 항만건설 정보시스템 구축 협력이 탄력을 받아 추진되며, 우리나라 항만건설 기술 개발과 항만건설 산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해기사협회

육상직 해기사 간담회 개최

한국해기사협회(회장 추형호)는 12월18일 해기사협회 회의실에서 육상에 근무 중인 해기사 20여명을 초청, 협회현황 및 2007년도 주요사업 등 협회 활동내역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협회 활성화를 위한 일선 회원들의 각종 의견 수렴 및 협회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해기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추형호 회장의 인사말과 함께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 병역법 개정'과 '시행령(안)' 관련 입법 추진과정 및 추진방향 등 협회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와 함께 협회 자산가치 증가에 기여하고 나아가 협회의 대내외적인 영향력을 향상시키며 강당과 복지시설의 확충으로 협회회원 및 가족, 회원사에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회관 증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해양대학교 김시화 학장은 향후 관련법(시행령)을 시행함에 있어서 발생될 문제점 및 미비점 보완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참석자 및 임직원 소개 후 △협회현황 및 정책사업에 대한 설명 △최근 해사관련 법령 개정 현황 △국제협약의 최근 동향 △2008년도 대의원 선거 및 투표에 관한 설명을 하고 난 뒤, 해기사협회의 발전적 방향 모색 및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노사정 실무 협의시 논의되고 있는 외국인 해기사 고용과 관련한 필수선박, 지정선박, 일반선박 중 필수선박/지정선박의 증선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이에 따른 거시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해기전승에 필요한 사항과 현안 문제점 등에 관하여 열띤 논쟁이 있었다.

그리고 초급해기사의 산업기능요원 TO 배정의 문제, 승선해기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이에 추형호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선되고 논의된 주요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관계당국에 건의하는 등 관련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해양대학교 김시화 학장 외 15명이 참석했다.